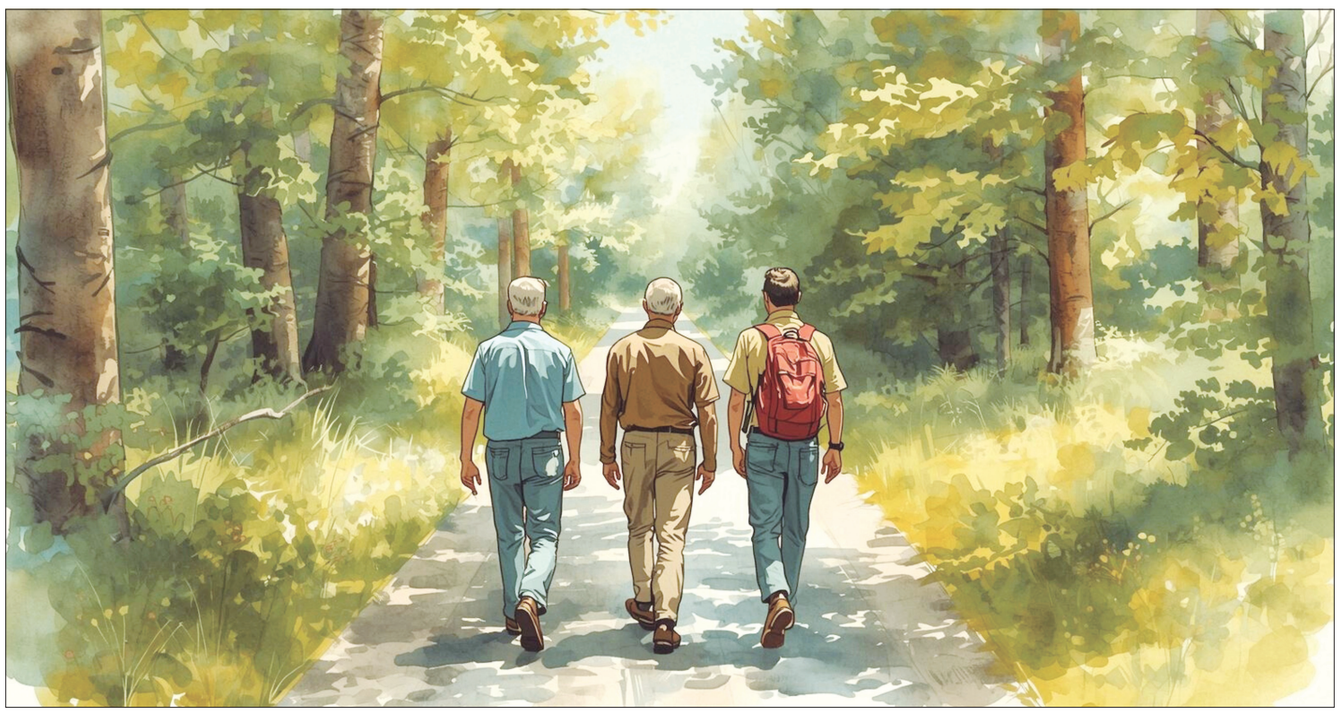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3 소승과 대승 :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한줄 요약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서로 기대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시로, 대승의 입장을 잘 드러낸다.

대승, 함께 가는 길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80년대 대학 캠퍼스는 낭만도 있었지만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는 혼돈의 공간이었다. 대학 건물에는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와 같은 구호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특별히 운동권에 가입하지 않아도 데모에 참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다. 그리고 시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운동가요였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시 가장 많이 불린 곡이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노랫소리가 들리면 학생들의 발길은 어느새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외에도 '아침 이슬'과 '광야에서', '바위처럼' 등 수많은 운동가요가 있었다. 얼마 전 대승불교를 강의하다가 당시 많이 불렸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노래가 문득 떠올랐다. 평소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신 진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곤 하는데, 이 곡의 가사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다.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대승이란 무엇이며 소승은 꼭 버려야 될 만큼 좋지 않은 가르침일까? 노래의 원작인 김남주의 시를 통해 이를 가늠해 보기로 하자.

김남주는 5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시인이다. 그는 1972년 유신 헌법이 반포되자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지하신문 '함성'을 만들어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으로 시인은 1973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출소 후에도 남민전이라 불리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또다시 체포된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투옥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김남주는 그 안에서 시를 쓰며 고난을 극복한다. 이때 쓴 시들을 모아 출간한 시집이 〈진혼가〉를 비롯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이다. 시인의 말에 의하면 다 마시고 난 우유갑에다 주로 시를 썼다 한다. 심지어 낙엽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쓴 적도 있다고 전한다. 이렇게 쓰인 시들은 교도관을 통해 시인의 아내에게 전해졌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집을 출간할 수 있었다. 옥중에서 쓴 시들 가운데 인상적인 한 편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 사랑만이 / 인간의 사랑만이 / 사과 하나 둘로 쪼개 / 나눠 가질 줄 안다."

'사랑•1'이라는 시의 일부다. 사과 하나를 반으로 쪼개면 하트 모양이 되는데, 이에 착안해서 쓴 시라 한다.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시인의 감성은 역시 타고나는 것 같다.

시인은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9년여 만에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1994년 지병인 췌장암으로 이승과 작별한다. 시인이 다니던 전남대학교에 김남주 기념관이 건립돼 그의 원고와 저서들을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이 학교에 다닐 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 퇴학당했다는 사실이다. 아픈 현대사가 온몸에 담겨 있는 시인이다.

오늘의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김남주가 감옥에서 쓴 작품이다. 당시 국악학과에 다니던 변계원이 이 시에 곡을 붙이고 '전국대학생 노래 한마당'에 참가해서 불렀는데, 뜻밖에 인기를 끌면서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불리게 됐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 안치환 등에 의해 여러 버전으로 리메이크 됐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읽어 본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하자 /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 주고 /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주자 / 고개 너머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 서산 낙일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 해 떨어져 어두운 길 /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 주고 /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 주고 /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김남주, 독재 저항 운동에 투옥
감옥서 쓴 시 시위 곡으로 불려
서로 기대며 함께 가는 모습 그려

때론 혼자서, 때로는 함께

많은 사람들과 등산할 때, 산행에 서툰 이들을 배려한다고 맨 앞에 세우는 경우를 가끔 본다. 베테랑들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산에 오르라는 뜻이다. 좋은 의도가 담긴 행동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산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혼자서 산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배려다. 배려의 본질은 무엇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데 있으니 말이다. 불편한 동행보다 편안한 혼자가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이 소승이며, 많은 이들과 함께 등산하는 것이 대승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불교의 소승(小乘)과 대승(大乘)이 떠올랐다. 소승은 말 그대로 작은 [小] 배[乘]를 타고 진리의 길을 혼자서 가는 것이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침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가리킨다.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진리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쪽배가 아니라 아주 큰[大] 배[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승의 시각은 불교의 최종 목표가 중생 구제에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불교의 법회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을 끝으로 회향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번뇌를 끊고 공부해서 성불하는 일이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불(成佛)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불교를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은 대승의 입장을 잘 보여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어깨동무하면서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는 길이니 말이다. 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승에서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나중에 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뒤에서 천천히 갈 테니 먼저 가라고도 하지 않는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길이 대승이다. 혹여 눈앞에 커다란 산이나 바다가 가로막으면 어기여차 넘어 주거나 건네준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고, 가는 길이 힘들어 쉬어갈 때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기댄다.

이 시를 읽으면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PSY)가 생각났다. 그리 날씬한 몸매가 아닌데도, 춤출 때 보면 그 어떤 댄스가수보다 날렵하고 힘이 넘친다. 많은 이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싸이가 부른 '예술이야'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너와 나 둘이 / 정신없이 가는 곳 / 정처 없이 가는 곳 / 정해지지 않은 곳 / 거기서 우리 / 서로를 재워 주고 / 서로를 깨워 주고 / 서로를 채워 주고." 노랫말처럼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지치고 피곤하면 서로를 재워 주고 무명(無明)이라는 잠에 들었을 때는 깨워 주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는 삶, 이것이 진정 예술이 아닐까 싶다. 김남주의 시와 싸이의 노래, 그리고 대승의 이념이 '서로', '함께'라는 지점에서 묘하게 통하고 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삶이 좋아서인지 대승에서 때론 이원적으로 접근한다. 소승은 자기만 위하는 방식이므로 나쁘고 대승이 좋은 불교라는 것이다. 물론 소승이라 불리는 부파불교(部派佛教)가 개인적인 깨달음에 치우친 나머지 중생 구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 역시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편적으로 소승과 대승을 좋고 나쁘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소승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대승권 국가보다 사회적인 실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은 폄하의 의미가 담긴 소승이란 표현 대신 남방불교, 혹은 상좌부불교라 부른다.

'혼자는' 나쁘고 '함께'는 좋다는 시선 역시 지양돼야 한다. 누구나 때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함께해서 불편하다면, 혼자 있도록 하는 것이 배려고 지혜다. 반대로 외로울 때면 온기 가득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처럼 '혼자'와 '함께'를 적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호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소승을, 함께하고 싶을 때는 대승을."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